

4월 3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4월 3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세계증시 동반 급등.. [다우: 7,978.08pt (+ 2.79%)]	회계기준 변경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결과가 호재로 작용하며 뉴욕증시가 2일(현지시간) 사흘 연속 급등세를 이어갔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216.48포인트(2.79%) 상승한 7,978.08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1.03포인트(3.29%) 오른 1,602.63을,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23.30포인트(2.87%) 상승한 834.38을 각각 기록했다. 다우 지수는 장중 한 때 8075까지 상승하며 근 2달만에 8000선을 회복하는 듯 했다. 그러나 장후반 단기급등에 따른 차익매물이 늘면서 상승폭이 줄었음. 뉴욕증시는 개장초부터 강세를 나타냈음. 미 금융회계기준위원회가 금융권이 요구해온 시가평가 기준 완화를 승인한 점이 호재가 됐음.
G20, 1.1조달러 출연.. 경기회복 기대감 자극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이날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면서 글로벌 경기회복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고 뉴욕증시는 합의문이 공개되면서 상승세가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음. G20 정상들은 우선 동유럽 등 개도국의 금융위기를 차단하고,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국이 출연해 총 1조 1,000억달러의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음.
G20 정상회담 기대감으로 유럽지역 주가·통화↑	G20 정상회담 기대감으로 유럽증시도 급등세를 보였음. 특히 G20 정상들이 개도국의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재원을 대폭 확충하기로 결정했음. 이같은 발표를 선반영해 폴란드 증시가 7% 가까이 폭등했고, 헝가리와 체코 증시도 5~6%의 급등세를 연출했음.
시가평가 기준 완화	미 금융회계기준위원회(FASB)가 이사회를 열어 지난달 중순 마련한 `시가평가 기준 완화 방안`을 최종 승인했음. 새로운 기준은 2분기 결산부터 적용됨.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들은 회계장부에 기재된 자산의 가치를 보다 융통성있게 평가해 반영할 수 있게 되었음. 앞서 로버트 허츠 FASB 회장은 시가평가 규정이 완화되면 은행들의 이익이 20%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공장주문 7개월만에 증가	미 노동부가 발표된 지난주(28일 마감기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66만 9,000건에 달하며 1982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65만건 정도를 예상한 월가의 전망치도 상회했음. 전날 ADP가 발표한 민간부문 고용감소 규모도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음. 이에 따라 금요일 예정된 3월 비농업부문 고용과 실업률이 매우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제목	주요 내용
G20 재정지출 규모 합의, 진전된 성과	주요 20개국(G20)이 2일(현지시간) 오는 2010년 말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5조 달러를 투입해 4% 경제 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명문화하며 진전된 성과를 달성. 국제통화기금(IMF) 재원을 현행 2,500억 달러에서 3배인 7,500달러로 늘리는 등 총 1조1,000억달러 규모 지원 프로그램에 합의한 것 역시 동유럽 국가 등의 디폴트를 막고 세계 금융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
유가 3주래 최대폭↑, 경기회복 기대	2일(현지시간) 국제 유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3주래 최대폭 상승 마감.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은 전일 대비 8.8% 급등한 배럴당 52.63달러를 기록.
ECB, 기준금리 0.25%p 인하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정례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 1.5%에서 1.25%로 0.25% 인하. 이 같은 금리수준은 1999년 ECB 창설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나 0.5%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던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
中 대출 급증세 지속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가운데 신규 대출 급증세가 지속. 2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는 소식통을 인용, 지난달 중국의 신규 대출이 1조3,000억위안으로 집계될 전망이라고 보도. 이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지난 1월의 신규 대출 1조6,200억위안보다는 작지만, 2월의 1조700억위안을 상회.
日 FX마진 거래 급증.. 엔 변동성에 '활황'	엔화 변동성이 급증하면서 일본 내 FX마진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2008년 회계연도 도쿄금융거래소(TFE)의 '클릭 365' 인터넷 FX 마진 계약수가 37%나 급증했다고 보도. 전체 체결 계약수는 4,833만4,039건으로 TFX가 클릭365를 운영하기 시작한 후 최대 규모.
증시 날자 환율 떨어졌다..... 올 최대폭 45원 하락	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에 비해 45원 떨어진 1334.5원에 거래를 마쳤음. 올해 들어 가장 큰 하락폭임. 뿐만 아니라 지난달 26일(1330.5원)을 제외하고 원/달러 환율이 1330원대에 장을 마친 것은 1월 8일(1,333원) 이후 처음. 이날 환율 하락의 일등 공신은 코스피 지수였음. 코스피 지수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자 환율은 급락으로 화답.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43.61포인트(3.53%) 오른 1276.97로 장을 마쳤음.
월드건설 "워크아웃 계획 확정"	월드건설은 "2주 정도 걸리는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 체결은 시일을 단축해 다음 주중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채권단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월드건설은 워크아웃 계획에 따라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신규 자금 557억원(1월 말 257억 원 지원금 포함)과 신규 공사비 1,200억원을 지원받기로 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